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9)

신화가 깃든 생태계의 공간

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7.23. 00:00:00



▲제주도 개벽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 신화가 깃들어 있는 물장오리 화구호. 이곳은 수생식물과 양서·파충류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공간이다.

△물장오리

물장오리(물장울)는 예로부터 제주섬 사람들이 신성시해온 3대성산의 하나이다. 제주도 개벽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운명을 다했다는 화구호가 바로 물장오리다. 물장오리 탐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6월19일 1차 탐사는 태풍 '민들레'가 북상중에 실시됐다. 우중탐사였다. 집중호우로 계곡에는 불어난 물로 위험이 따랐다. 1시간을 걸어 정상에 이르렀지만 화구호는 짙은 안개와 비바람으로 전혀 분간할 수 조차 없었다. 2차 탐사는 3주후인 7월10일 있었다. 성진이~테역장오리~쌀손장오리~물장오리에 이르는 코스였다. 이 코스는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 문화의 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다.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가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나와서 만들어졌다는 오름이다. 이 신화와 전설속의 주인공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오름에 많은 이야기를 남겨 놓았다.

제주섬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하다가 그 물에 깃들었다는 물장오리. 흙을 나르다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었다는 다랑쉬오름. 길삼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 앞으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 놓아 등잔을 높였다는 일출봉.

설문대할망의 영원한 거처 물장오리와 마주보고 있는 쌀손장오리(살썩장오리)는 탐라의 개벽을 열었던 세 신인의 활동무대였다. 탐사단은 “마치 탐라창조를 소재로한 연극무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한마디씩 던졌다.

물장오리 분화구 사면에 남아있는 제사터 또는 절터로 보이는 기단석들도 이곳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 문화의 터전이었음을 보여 준다. 아직 이곳에 대한 발굴조사 기록이 없어 규명이 필요하다.

물장오리는 4:3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곳은 무장대의 은신처였으며 경찰 토벌대와 최초의 교전이 벌어졌다. 물장오리와 마주하고 있는 테역장오리의 ‘테역부리’는 무장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물장오리 화구호는 수심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하여 ‘창(밀)터진물’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60년대 후반 도내 최초의 모 골프장 개설 초기에 이곳 물을 끌어다 썼었다. 지하수 개발이 되기 전의 일로 화구호에서 골프장까지는 수로가 연결됐다.

몇년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군부대가 동원돼 대대적으로 철거하기는 했지만 화구호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구조물의 잔재가 있다. 구조물 철거를 놓고 제주도와 골프장측이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했지만 개발에 대한 ‘희생’이자 ‘ 댓가’였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이다.

물장오리 화구호는 당시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화구 둘레를 따라 정비하는 바람에 상당 면적이 잠식당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산지화가 가속화되면서 습지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물장오리 화구호는 생태계의 공간이다. 주요 습지식물로는 큰고랭이와 골풀이 많다. 수계가 풍부한 화구호에서는 살모사, 유혈목이, 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양서·파충류가 흔히 관찰된다.

/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물장오리는 파충류 집단 서식지

쌀손장오리에서 물장오리 숲 속으로 들어서자, 등과 배쪽의 적갈색이 뚜렷한 곤줄박이 새끼들이 어미새와 함께 바깥 구경에 나섰다. 등지를 갓 떠나 독립생활을 하기 앞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보통 어미새들은 등지를 떠나서도 새끼들이 혼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이로 유인하면서 나뭇가지를 걸어다니는 법, 날개를 퍼덕이며 이동하는 법, 먹잇감을 찾아내는 법 등을

세밀히 가르친다. 탐사단을 피해 높은 나뭇가지 사이로 옮겨다니는 곤줄박이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닐 정도로 애처롭다.

물장오리는 사면 전체가 울창한 낙엽수림대로 덮여 있고 천미천 지류를 끼고 있어서 동박새, 박새, 직박구리, 휘파람새, 굴뚝새와 같은 텃새와 팔색조, 삼광조, 큰유리새, 흰눈썹황금새, 붉은배지빠귀, 두견이와 같은 여름철새들의 번식지로서 조류의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물장오리와 쌀손장오리 사이의 확 트인 테역밭 일대에서는 꿩, 멧비둘기, 제비, 큰부리까마귀들의 비행도 쉽게 확인되었다.

특히 물장오리는 물에 절대 의존하는 참개구리의 산란장소이며 산새들과 노루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누루뱀, 쇠살모사와 같은 뱀들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에서는 대표적인 파충류의 집단서식지이기도 하다.

환경부(2001)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장오리에는 수서곤충류 182종, 양서류 5종, 파충류 6종, 조류 45종, 포유류 1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장오리에서 들고양이와 들개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포식자가 되고 있다.

<김완병 탐사위원(제주자연사박물관/조류분야)>

[전문가리포트]연중 마르지 않는 화구호

물장오리는 연중 마르지 않는 화구호(산정호수)로 매우 유명한 오름들 중의 하나이며, 아마도 제주도에 분포하는 연중 물을 담고 있는 오름 화구호 중에서 그 호수의 수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장오리 분화구의 외륜은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이 약 290m, 북서-남동 방향의 단축이 약 242m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하지만 외륜의 높이는 방향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남남서쪽 정상이 해발 937.2m인 반면 북동쪽 방향으로 향할수록 점차 낮아져 가장 낮은 곳은 해발 887m에 불과하다.

물장오리 화구호에서 물을 담고 있는 수면의 해발고도는 풍수기와 갈수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약 885m이며, 수면은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이 약 185m이고 북서-남동 방향의 단축이 약 125m이지만 남서쪽이 약간 볼록한 마치 계란을 장축방향으로 반 잘라 놓고 보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 화구호의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깊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서쪽 일부에는 수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젠가 그 깊이를 여러 지점에서 직접 측량해 보고 싶은 욕심이 든다.

분화구의 외륜중에서 북동쪽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화구호 수면까지의 높이 차이는 약 2~3m에 불과하다. 또한 물장오리를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이 외륜의 가장 낮은 쪽으로 등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답압에 의해 그 차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차 더 작아질 것이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강우가 발생한다면, 수면이 높아진 화구호의 물이 월류하게 되고 독이 터진 제방과 같이 오름사면이 파괴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괜한 우려일까 ?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